

농업인 신동춘씨 가루쌀 재배·판로개척 주목

‘가루쌀’ 전국 보급 확산시킨 귀농 농업인

밥쌀용 쌀 재배에 대체하고 밀가루 대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 재배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귀농인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정부가 가루쌀 종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앞장서서 종자를 보급할 만큼 가루쌀 재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에 귀농한 화사 농업인 신동춘씨(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품질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타벅스에 쌀 원료로 가루쌀을 납품할 정도로 재배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가루쌀은 일반벼 대체 작물로 정

부 차원에서 전국적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팥 가루로 만들어 빵·이유식 등 가공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2026년까지 재배면적을 4만20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춘 곡성 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으로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 2002년 고향 곡성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 남들과 같은 작목과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생산해도 판로는 없고 노력에 비해 손에 잡히는 소득은 없었다.

그후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과 접목해 밀 재배 불모지인 곡성에 벼를 심을 눈에 이모작으로 밀 50ha를 재배했고 이듬해인 2018년 밀을 수확한 눈에 처음으로 가루쌀 1ha 재배에 도전했다.

주변에선 재배 기술도 정립되지 않고 판로도 불확실한 가공용 쌀 재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첫 해 수확량이 10a(300평)당 540kg에 달했다.

일반 벼 545kg과 비슷했지만 3년이 되던 해 수확량은 580kg으로 늘었고 가격도 일반 쌀(40kg) 7만 5000원보다 20% 많은 9만원에 달했다. 2022년엔 첫 재배 당시보다 30배가 많은 30ha까지 확대해 약 150t을 생산했다.

판로도 안정적이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과협회와 스타벅스를 비롯해 유명 제빵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5개 식품업체에 원료용 쌀 15t을 공급해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실제 신 대표는 올해 농식품부를 대신해 가루쌀 종자 부족분 32t(609ha 재배분)을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급했다.

포토뉴스



(좌)청인, 순천 해룡면 취약계층에 라면 110박스 후원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에 위치한 (좌)청인은 지난 13일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에 310만 원 상당의 라면 110박스를 기탁했다. (좌)청인은 농자재 및 영농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3년간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주은행 전반기 '광은명장' 40명 선정...포상·격려
광주은행은 2023년 전반기 '광은명장' 대상자 총 4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신뢰성 있는 지수로 평가하는 '광은명장제도'는 수신, 여신, 자산관리 등 총 14개 부문의 명장들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한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포상제도다. /권형안 기자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ACC·육아종합지원센터·문화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14일 지역 사회 유아교육 및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진흥원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유아종

합지원센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광주광역시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굳건히 한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이 광주시 내 유아대상 문화, 예술, 교육 관련 사업의 구심점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기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과제 발굴 및 유아문화예술교육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유관기관 간담회로 시작했다. 이후 총 4차례 협의회를 거쳐 기관 상호 간의 협력방안을 고민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공연·학술포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밖의 상호 협력 및 지원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조순주 기자

광주시교육청 청렴슬로건·쇼츠영상 공모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청렴 슬로건 및 쇼츠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진행된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광주교육가족,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슬로건 외에도 쇼츠영상을 추가로 공모한다. 각종 SNS에서 유행하는 60초 이내 간결하고 창의적인 짧은 영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모한 청렴 슬로건과 쇼츠영상은 심사와 표절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8편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과 시상품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시교육청의 리플릿 제작, 유튜브 홍보, 설명회·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응모작을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감사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운남고, 광주 최초 학교급식 'QR코드 체크인' 서비스 시행

효율적 학교식식관리·이용자 편의 증진



운남고등학교는 효율적 학교 식식 관리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

난 13일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14일 운남고에 따르면

'QR코드 체크인'은 식식을 이용하는 학생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 이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QR코드 접속을 통한 체크인 서비스는 운남고가 광주 학교 중 처음이다.

간편한 'QR코드 체크인'으로 급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업무경감'과 실시간 확인을 통한 피드백 활동으로 '학교급식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운남고 백종복 교장은 "효율적 학교식식관리와 이용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간편한 전산 인증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순주 기자

순천 왕조2동, 매실 수확 농촌일손돕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농기도 살리고 내부 화합도 모



순천시 왕조2동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힘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왕조2동 직원들과 통장협의회는 해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13일 동직원과 통장 35명이 월등한 한 농가에 방문하여 매실 5톤을 수확하고 5200㎡ 매실 밭 일대를 정돈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작업 후에는 통장들이 다 함께 모여 소소한 단합대회를 개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지원받는 농가는 "병해 피해로 매실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 근심이 많았는데 직원들과 통장들이 나서 도와주시 힘이 안고 위료가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연민 통장협의회장은 "고마워하는 농가를 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하다"고 전했다.

방수진 왕조2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나눔에 동참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하나 된 모습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완도교육청, 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

민관학 함께 2023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협의회 실시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완도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긴급위기 학생의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2023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위기 학생에 대한 협력 지원을 위해 완도군청 및 면사무소, 학교, 완도군가족센터, 완도군장애인복지관, 국제로타리 청해로타리클럽 등 총 8개 기관 19명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기학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 개선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상호 연계 가능한

서비스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 범위와 방법을 두고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완도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관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 취약 학생 및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연계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이다.

김정선 교육장은 "민·관·학이 함께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학생들의 통합성장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이유식 기자

광양시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적극 참여

매실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어려움 해소



광양시는 매실 수확철을 맞아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고령 농가와 부녀농가, 장기 입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지역 기관, 단체와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매실 수확 작업을 도왔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바쁜 일정을 쫓아 14일 봉강면 농가를 방문해 농업

지원과와 홍보소통실 직원 20여 명과 함께 매실 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 시장은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인건비까지 올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매실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시 공무원과 기관, 단체 직원들이 적극 나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